

육백산수종갱신을위한

임목벌채사업전면철회및요존국유림해제촉구건의문

(제 7 회 임사회시 채택)

최근 산림청에서 산지의 효율적이용과 경제림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육백산일대 천연림 25,179ha에 대한 수종갱신사업추진 및, 가곡면 중봉산, 하장면 청옥산일대 16,910ha에 대한 수종갱신사업 확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일관성없는 산림정책에 대한 10만 삼척시민들의 원성이 심화되고 있어, 만부득히, 천연림보존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육백산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사업 전면철회 및 요존국유림해제 촉구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림청에서 수종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지역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백년생의 참나무, 자작나무등의 활엽수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을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고산지대 특유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어느지역에서도 서식치 않는 산당귀, 동자꽃, 하늘나리등 초화류와 토끼, 다람쥐등 희귀 야생동식물의 주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산특유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온 육백산일대의 천연림을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될 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요존국유림이라며

그동안 탄전지역회생을 위하여 지역내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끊임없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산림훼손 규제완화건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확대건의, 경동탄광, 명성그룹등 민간기업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하였으나, 천연림보호를 명목으로 적극반대에 앞장서 온 산림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변으로만 느껴졌던 산림청의 천연림보호 정책이,
자연생태계 보존, 주변환경문제에 대한 사전 치밀한 검증과
이해관계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8개월동안의 짧은기간동안 졸속적인 수종갱신사업 계획입안 및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학계, 각종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굳이
반대하는 수종갱신사업을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 추진하는것은,
민의를 무시한 정부의 횡포라고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천년을 두고 자라온 천연림을 완전히 삭벌
하고 경제성이 희박한 낙엽송, 잣나무등으로 대체조림을 한다는것은
거시적인 경제시책은 물론 산림시책의 이론에도 맞지않는 국고 낭비
일뿐만 아니라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사업 종료후의 경영사업비나 수종갱신대상등
기본계획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더더욱이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획일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곡면 상마읍리
육백산일대의 기존 임목벌채지 3만3천여평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임목반출을 위해 개설한 임도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근덕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주민집단반발이 일어나는등 도처에 주민원성이 내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삼척시를 포함하여 인근 태백시, 정선군도 탄광지역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하여 지역존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 주민모두가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육백산 관광지 개발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을만큼, 육백산이 지역발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심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삼척시에서도 육백산 개발을 위하여 민자유치등 지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상산업부가 폐광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강원도와 이해관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전지역개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갖는등 제정 준비중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산림훼손의 절대 불가성을 주장해 온 산림청이, 이에 배치되는 무모한 수종갱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본격적인 육백산개발사업 착수시 기 수종갱신사업에 투자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장시킬수 없다는」 핑계로 주민들이나 민간기업체가 요구하는 육백산 개발계획을 지연시키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실을 남겨놓기 위한 행정행위로 밖에 귀결 지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산림청이 지역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는 폐광지역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은 못할지언정, 이들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의지에 반하여, 무모하게 강행 추진하고 있는 육백산일대 수종갱신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철회되어야 하며, 요존 국유림도 반드시 해제되어야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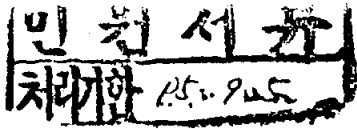
아울러서, 앞으로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소재할 경우 「지역임업경제권」의 개념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소득, 지역개발등 공익과 연계하여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자유롭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주민공청회중인 탄전개발 특별법안에도 지역개발 제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존국유림 규제 관계법 완화와,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기 지정되었더라도 개발에 필요할시 추가확대지정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오며,

만약, 위 내용에 건의된 우리 10만 삼척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인근 시군의회, 지역번영회등 사회단체, 주민과 연대하여 관철될때까지 공동대처 할 것임을 천언 드립니다.

1995년 8월 9일

강원도 삼척시의회 신상균의장외 14인 의원일동



산

림

청

우 130-012 서울 동대문구 침랑리동 207/호 (02)961-2414~6/전송 961-2417/담당 장 현

문서번호 경영 07000 - 272

시행일자 1995. 8. 31. (년)

수신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제목 육백산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사업 전면철회 및 요존국유림 해제촉구
건의문에 대한 회신

1. 삼척시의회 13130-139('95. 8. 9)호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림정책과 임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8.15 해방과 6.25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황폐되었던 산림을 온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이제 녹화는 되었으나 아직 산업용재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빈약한 실정이며, 수종갱신과 육림작업 등을 통해 보다 쓸모있고 이용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그동안 녹화위주의 산림행정에서 산지·산림·산촌을 종합하는 새로운 임정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분산적으로 실행하던 산림사업을 유역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산을 중심으로 중점 실행 하므로써 「지역임업경제권」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시 관내 육백산을 포함한 27개산 777천ha를 「산별시범사업단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이오니 새로운 임정발전방향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귀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귀의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육백산지역 수종갱신사업 철회요구에 대하여 :

(1) '수종갱신사업'은 용재림(用材林)으로 육성가치가 없어 보다 쓸모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종갱신대상지역 선정과 벌채대상목 선정시에 우량목 등은 존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육백산의 경우 '95년도에 100ha의 수종갱신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산불피해로 인하여 목재로서의 가치가 적은 천연림21ha에 대한 수종갱신벌채작업을 완료 하였으나, 귀의회 건의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수종갱신계획된 100ha중 아직 벌채하지 않은 천연림은 산불피해 등으로 인하여 수종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3)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임에도 목재수요의 87%를 외재를 도입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환경보전 압력등으로 목재자원 보유국에서는 점차 원목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목재자원증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하여는 형질이 나쁜 천연림은 보다 가치있는 수종으로 갱신을 하여야 함을 이해하시고, 산림자원증축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존국유림 해제 및 탄전지역개발특별법 제정지원에 대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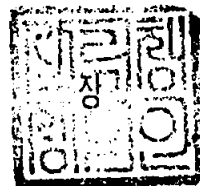
(1) 현재 농상공부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우리청에서도 폐광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이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므로

(2)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폐광지역진흥지구내의 주민소득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보전임지전용허가기준이나 산림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등은 신중하게 검토코자 합니다. 끝.

산

림

청



푸 르 게 울 창 하 게
강 릉 영 립 서

우 210-102 강릉시 교2동 420-1 / 전화 (0391)646-8306 / 전승 42-8302 / 담당 조성래

문서번호 사업 13130 - 495

시행일자 1995. 9. 7. (년)

수신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제목 육백산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사업 전면철회 및 요존국유림 해제촉구 건의문에 대한 회신

1. 삼척시의회 13130 - 139('95. 8. 9)호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지역사회와 임업정책 발전에 애써주시는 귀의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 귀의회의 육백산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사업 전면철회 및 요존국유림 해제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는 이미 산림청 경영 07000 - 272('95. 8. 31)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는 새로운 임정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병행하여 모든 산림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중에 있어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산림 자원증축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청 회신문 "사" 1부. 끝.

강 릉 영 립 서



강 원 도

우 200 - 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 (0361) 241 - 4082 / 담당 정경수

문서번호 자원 52210 - 0248

시행일자 1995. 8. 18. (년)

경 유

수 신 삼척시 의회의장

참 조

제 목 육백산 관련 건의문에 대한 회시

1. 삼척시 의회 13130-139('95, 8. 9)호에 관련됨.

2. 귀 의회에서 송부하신 육백산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 사업전면 철회 및
요존국유림 해제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바 본건 국유림 사업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림청에도 접수되어 처리중인 것으로 사료되나, 별첨과 같이 지역 발전에
기여되도록 적극 협조 건의 하였고 통보합니다.

첨부 : 건의문 사본 1부. 끝.

강 원 도 지



통 상 산 업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 503-9647/전송 503-9496,3142/담당 김기정

문서번호 석탄 57500-244

시행일자 1995. 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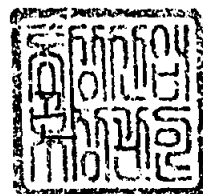
수신 삼척시 의회의장

참조

제목 건의문에 대한 회신

1. 삼척시 의회 13130-139호('95.8.9)와 관련사항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폐광지역의 개발촉진지원을 위하여 가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법제정을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강원도와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초안을 작성, 지난 7.25일 공청회를 가졌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체산업의 유치와 고원관광개발의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법초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코자 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의회에서도 동 특별법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통 상 산 업 부 장



자원정책3심의관 전결

강 원 도

우 200 - 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 (0361) 241 - 4082 / 담당 정경수

문서번호 자원 52210 - 0248
 시행일자 1995. 8. 18. (년)
 경 유
 수 신 산림청장
 참 조 산지계획과장

선결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시보</div> </div>	
접	일자 시간	19 . .	시		
수	번호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제 목 국유천연림 수종갱신 계획 검토 및 개발요건 완화 건의

1. 최근 삼척시 소재 육백산 산별 시범단지의 수종갱신 별채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여 수차례 신문보도된 바 있으며, 지역반영회와 삼척시 의회에서 탄원 및 건의문이 관계요로에 발송된바 있습니다.

2. 이는 육백산 국유림 산별 시범단지의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 전면철회 및 요존국유림의 개발을 위한 해제를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요건의 완화를 바라는 내용으로,

3. 삼척시 의회에서 발송된 건의문이 귀청에도 접수되어 처리중인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주민의 여론이 수렴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도에서 입안하여 협의 요청중인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 원 도 지 사